

독일·베트남·튀르키예 국제농업박람회

농식품부, K-농기자재 홍보 지원

이달 세계적 농업박람회 집중
국내 농기자재 수출기업에
해외 판로개척 등 기회 제공

정부가 이달 중하순에 걸쳐 독일 등 3개국에서 개최되는 농업박람회에 한국 전시관을 설치하고 K-농기자재 홍보를 지원한다. 국내 우수 농기자재의 대외홍보를 통해, 유럽 및 동남아 지역 수출시장 개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12일(현지 시간) 독일을 시작으로, 13일 베트남, 20일 튀르키예에서 개막하는 국제 농업박람회에서도 한국관을 잇따라 운영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독일(11월 12~15일, 국내기업 22개사 참가) 행사에는 동물용의약품 12개사, 사료5개사, 축산농기계5개사가 참가한다. 이어 베트남(11월 13~15일, 17개사) 행사에는 비료 9곳, 친환경농자재 3곳, 농기계 2곳, 시설자재 2곳 종자 1곳 등이 선보인다. 튀르키예(11월 20~23일, 10개사)박람회에는 비료 3곳, 친환경농자재 2곳 농기계 2곳, 시설자재 1곳 종자 1곳, 사료 1곳의 참가가 예정돼 있다.

농식품부는 각 박람회별 구매의사가 높은 해외 바이어들을 사전에 발굴했다. 수출상담회 진행 등을 통해 현장에서 업무협약(MOU) 및 구매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독일 하노버에서 열리는 ‘유로티어(EuroTier) 2024’는 혁신 기술을 통한 가축 사육 및 관리 부문의 세계적인 전시회다. 농기자재뿐만 아니라 동물용 의약품 업체 12개사가 함께 참가해 축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대구 엑스코에서 개막한 ‘2024 대한민국 국제농기계자재 박람회’에 참석해 첨단 농기계를 살펴보고 있다. /농식품부

산 관련 제품 수출 확대를 도모한다.

베트남 호치민에서 개최되는 ‘그로우테크 엑스포(Growtech EXPO) 2024’는 베트남 최대 규모의 국제 농업 전시회다. 국내 비료업체의 동남아 수출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해 비료·친환경농자재 분야 중심으로 한국관을 구성한다. 이번 참가로 비료 분야 수출기업의 현지 진출 기반을 확고히 다진다는 계획이다.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예정돼 있는 ‘그로우테크 안탈리아(Growtech Antalya) 2024’는 세계 농업관계자들이 온실기술, 관개시스템 등을 선보이는 세계 최대 온실 박람회다. 우리 측은 온실 피복재, 자동 농산물 재배시스템 등 국내 온실 관련 농기자재 제품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이 행사에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도 국내 농기자재 업체 8개사와 함께 참여하며, 사전협의를 통해 참가업체 간 교류행사를 마련하는 등 농기자재 기술에 대한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내 농기자재 수출기업에게 해외 판로개척 및 수출확대 기회를 제공하고자 올해부터 해외 박람회 참가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11월은 세계적인 국제 농업박람회가 집중돼 있는 시기로, 연초부터 국내 농기자재 수출업체의 관심과 참가 의사가 높았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11월에 집중된 박람회 참가는 비료, 시설자재, 동물용의약품 등 우리 농기자재 수출기업이 해외 진출 기반을 다지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세계시장에서 K-농기자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업계와 함께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오는 20일 서울 코엑스에서 친환경농자재 및 사료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 ‘농식품+ 전후방산업 수출상담회’(BKf+)와 연계하는 행사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송미령 “배추, 고춧가루 등 가격 하락세”

(농식품부 장관)

김장재료 수급 동향 점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11일 배추 등 김장 주재료 값은 물론, 고춧가루 등 부재료도 가격이 하락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농협 하나로마트 서울 양재점을 방문해 배추와 무, 고춧가루 등의 김장재료 수급 동향을 점검했다. 또 지난달 23일 발표한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농축산물 할인 코너도 둘러봤다.

그는 농협 관계자 등과 만나 현장 여론을 청취한 뒤 “김장 주재료인 배추도 매가 가격은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김장이 시작되는 11월 이후에는 소비자가 가격이 더욱 안정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또 “고춧가루, 양파 대파 등 부재료도 생산량이 증가해, 공급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농식품부는 김장철을 맞아 배추(2만 4000톤)·무(9100톤) 계약재배 물량을 집중 공급하고, 마늘 등 양념채소류는

정부비축 물량을 공급해 시중 유통량을 늘리는 데 주력해 왔다. 아울러, 할인지원을 통해 12월 4일까지 배추·무 등 11개 김장재료에 대해 최대 40% 할인을 지원하고 있다.

앞서 지난 10월 23일 정부와 국민의 힘은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달 7일 시작된 ‘최대 40% 할인’은 다음 달 4일까지 4주간 대형마트와 중소형마트, 하나로마트, 전통시장 등 전국 1만 8300개소에서 실시된다. 구매하는 배추 1인당 마트 등은 2만원, 전통시장은 3만원이다.

양념류는 수입산 고추 1000톤을 고춧가루 가공업체에 조기 방출한다. 국산 마늘과 양파는 각각 500톤을 도매시장 등에 공급하고, 일부 물량은 대형마트 등에 직공급해 할인 판매한다. 배는 폭염 피해물량 1만 톤을 퓨레 등 가공품으로 공급하고 천일염은 5000톤을 전통시장 및 마트 등에 직접 할인 공급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코트라, ‘K-스마트팜’ 호주 진출 발판 마련

농식품부와 ‘한-호 스마트팜 로드쇼’

광활한 농지를 보유한 호주 현지에서 K-스마트팜 혁신기술을 알리고 우리 기업들의 수출을 타진하는 행사가 열렸다.

코트라(KOTRA)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우리 스마트팜 수출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8일 호주 브리즈번에서 ‘2024 한-호 스마트팜 로드쇼’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호주는 국토의 49%에 달하는 3억 7000만 헥타르(대한민국 면적의 37배)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어, 효율적인 농업자원 관리와 스마트팜 기술의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호주 정부는 첨단 농업기술 도입 촉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 스마트팜 기술연구와 개발에 힘쓰고 있다.

코트라는 이번 행사가 우리 기업의 호주 농업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고 향후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코트라(KOTRA)가 지난 8일 개최한 ‘한-호 스마트팜 로드쇼’에 참석한 국내 기업과 호주 현지 기업 및 연구소 관계자들이 1대 1 수출상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코트라

행사는 ▲한-호 스마트팜 산업동향 세미나 ▲현지 유망 프로젝트 소개 ▲한-호 스마트팜 기업 1대 1 비즈니스 상담회 등으로 진행됐으며, 웨비나 동시 진행으로 국내 스마트팜 분야 기업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상담회에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함께 호주 수출이 활발한 라면, 장류, 배, 인삼 등 K-푸드 홍보 행사가 진행돼 바이어들의 이목을 끌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마사회 “경마로 국민들에게 문화생활 제공”

경기도 과천시 ‘벤티트파크 서울’
2040 전용공간 ‘놀라운지’ 마련
전체 경마 매출 중 90% 사회환원

“주말 하루에만 약 8만에서 10만명이 사업장과 온라인을 통해 동시에 경마를 관람한다. 경마 산업은 지속적으로 발전하며 국민들의 여가 문화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에는 ‘벤티트파크 서울’이 위치해 있다. 이곳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경마장으로, 가족이나 친구 등 소중한 사람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명소로 유명하다. 규모는 약 115만㎡(35만평)에 달하며, 1998년까지는 ‘서울 경마장’으로 불렸으나 도박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경마공원으로 개칭됐고, 2014년 현재의 이름으로 변경됐다.

지난 9일 방문한 ‘벤티트파크 서울’은 다양한 나무와 꽃들로 꾸며진 잔디밭에 돛자리를 펴고 있는 가족들과 심장을 뛰게 하는 경마를 즐기는 20~30대 MZ청년들로 가득했다. 이는 경마가 투기나 도박이 아닌 건전한 생활 레저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2040 전용공간인 ‘놀라운지(NOL L



‘벤티트파크 서울’에서 경마가 진행되고 있다. /김대환 기자

OUNGE)’에서 경마를 즐기고 있는 A씨(30세)는 “1만원 정도로 한도를 정하고 경마를 하다 보니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건전한 취미 생활이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B씨(28세)는 “남자친구와 함께 처음으로 경마장에 와 봤는데 사다리타기 같은 다양한 이벤트 덕분에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놀라운지’는 지난 2016년 1월 한국마사회가 2030세대들에게 새로운 기술들을 접목한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특별한 공간이다. 초보 경마교실, 내부좌석, 그랜드스탠드, 한국경마 100년 기념관 등으로 구성된 이라운지는 건전하고 즐거운 여가로서의 경마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말 산업으로 국가 경

제 발전과 국민의 여가 선용에 기여한다는 목표 아래, 전체 경마 매출 중 약 90%를 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한국마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경마 고객은 약 1000만명, 총 매출은 6조 5000억원으로 집계된다.

총 매출의 73%는 경마에 참여한 고객에게 환급되며, 9%는 경주 상금과 시설 비용 등의 운영 경비로 사용된다. 16%는 레저세, 교육세 등의 세금으로 납부되며, 약 2%의 이익금은 기부금, 축산발전 기금 등으로 활용된다.

김삼두 한국마사회 홍보실장은 “경마시행을 통해 국민들에게 즐거운 문화생활을 제공하고 있다”며 “발생되는 수익금은 말 산업 육성과 축산 발전에 사용된다”고 말했다.

/세종=김대환 기자 kdh@

KIAT ‘韓 지방시대 엑스포’ 5만명 방문

사흘간 행사 진행… 성황리 종료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지난 6~8일까지 사흘간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송암스포츠타운에서 열린 ‘2024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 5만여명이 방문한 가운데 성황리에 종료됐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022년부터 열리고 있는 이번 엑스포는 정부의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비전과 정책, 성공사례 등을 공유·소통하는 국내 최대 규모 정책박람회다.

올해는 ‘함께 여는 지방시대, 활짝 웃는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정책 추진 성과와 비전을 공유했다.

첫날 열린 ‘제2회 지방시대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국민이 누구든지 어디에 사시든지 일자리부터 교육, 의료, 문화, 인프라까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공정한 기회를 누리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방시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사흘간 이어진 행사에는 정부 부처, 지방정부 관계자, 청년, 기업, 활동가, 지역민 등 총 5만여 명이 방문해 지방시대 정책과 비전을 제시했다. /세종=한용수 기자